

상설공연

민요의 나라
신화의 섬에
흔저 읊서

제주 일노래

2022 제3회

악포집

올레 너머 들리던 노래,
밭담 돌 트명을 오가던 소리,
어울렁더울렁 바당밭에 울리던 가락.
제주 사람들의 애환과 삶을 담은 이야기들이
일노래에 담겨 우리를 찾아옵니다.

발간사

지속 가능한 전통, 제주의 일노래가 울리는 세상

고영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 제주일노래상설공연집행위원장

2020년 여름에 네 차례 올리면서 시작된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이 2021년에는 스무 번의 공연으로 성장했고 7개 곡을 담은 <제주 일노래 악보집>도 발간했습니다. 올해 <2022 제3회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 역시 스무 번의 무대를 진행하였고 매우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에 제작한 첫 번째 악보집에 실린 곡들을 이음뮤지컬단, 성짓골소리합창단, 제주모드라기합창단이 불렀고 제주의 일노래를 대중과 공유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 제3회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 프로그램에 포함된 6개 곡을 담은 두 번째 <제주 일노래 악보집>을 발간하게 되어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악보집에 있는 6개 곡의 음원은 <제주 일노래 상설공연> 홈페이지 (www.jejusong.or.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ㄱ레 ㄱ는소리’, ‘뚝뚝불미소리’, ‘불미소리’, ‘밀레질소리’는 각 1개 음원으로, ‘해녀노젓는소리’는 2개의 다른 음원으로 비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전되어온 제주의 일노래를 서양식 악보로 기록하면서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원이라도 악보를 향유 하는 대상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직접 불러볼 수 있는 악보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만큼 채보자와 여러 차례 논의 후 채보와 편보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제주방언으로 노래한 곡들의 가사를 채록하였고 표준어로도 표기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제주방언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제주 일노래라는 사실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제주인들이 일상과 노동의 현장에서 불러왔던 일노래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이 체험한 예술성도 함께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일노래의 음원과 악보는 많은 이들이 힘 모아 만들었습니다. 음원 녹음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래한 제주농요보존회, 이어도민속예술단, 덕수리민속보존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보와 편보를 맡은 문효진 작곡가, 바쁜 일정에도 기꺼이 악보를 감수해준 강효주 교수는 제주의 전통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고향 제주에 돌아온 이성훈 박사는 제주민요연구자로서 학술적 지식과 경험을 <제주 일노래 악보집>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주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악보집에 이어 2022년 두 번째 악보집을 발간하면서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제주 일노래 악보집>에 대해 여러분이 의견과 제안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의 일노래가 지속가능한 전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주 일노래 악보집

해녀노젓는소리 (해녀노래)

해녀노젓는소리 (해녀노래)

ㄱ레ㄱ는소리 (맷돌가는소리)

똑딱불미소리

불미소리

밀레질소리



해녀노젓는소리

가창 이어도민속예술단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 = 100

1.이 어 도 사 나 - 이어 도 사 나

1.이 어 도 사 나 -	이 어 도 사 나 -
요 넬 - 첫 엉 -	어 - 덜 가 리 -
2.물 로 - 뱅 뱅 -	돌 아 진 섬 에 -
흔 - 푼 두 - 푼	모 여 논 금 전 -
3.흔 무 - 를 - 랑	짓 고 나 가 고 -
이 - 물 에 - 랑	이 - 사 공 아 -
허 - 리 칸 - 에	화 장 - 아 야 -

이 어 도 사 나 - 어 서 나 가 자

전체 받는 소리 반복

이 어 도 사 나 -	어 서 나 가 자 -	4.요 네 - 착 이
진 - 도 바 당 -	흔 골 로 가 자 - (후렴1)	없 을 - 손 가
먹 으 나 굶 으 나	물 질 을 허 영 -	
서 방 님 술 값 에	다 나 - 간 다 - (후렴2)	
흔 무 - 를 랑 -	지 고 나 가 자 -	
고 - 물 에 랑 -	고 사 - 공 아 -	
물 - 때 점 점 -	늦 어 나 간 다 - (후렴2)	

부 러 - 진 덜 한 라 - 산 에 곧 은 - 목 이 물 정 당 줄 - 이
 요 벤 - 드 레 그 차 나 진 덜 선 흥 - 고 지

없 을 소 나 - (후렴3) 5.우 리 - 선 관 - 가 - 는 덜 랑 - 메 - 역 종 은 -
 전 복 - 종 - 은 저 머 - 들 로 - 서 리 나 슬 슬 -
 6.저 바 - 당 - 에 저 군 - 함 아 - 궁 글 릴 대 로 -

여 - 끝 으 로 - 7.흔 - 착 손 - 에 테 왓 을 메 고 - 흔 착 손 에 -
 인 도 나 협 서 - 칠 - 성 판 - 을 등 에 다 지 고 - 흔 질 두 질 -
 궁 글 려 줍 서 - (후렴3) 구 쟁 기 썩 - 복 하 서 라 만 은 - 내 숨 쫓 랑 -

1. 2.
 빗 창 을 심 엉 - 들 어 가 보 난 - (후렴2) 8.요 물 - 아 - 래 은 과 - 금 은 -
 깊 - 은 물 속 - 노 푼 - 남 - 의 열 매 로 구 나 -
 못 - 혈 레 라 - 9.우 리 - 베 - 에 서 낭 - 님 아 -
 뒤 발 - 로 - 랑 요 동 - 치 명 -
 10.물 로 - 뱅 - 뱅 돌 아 진 섬 에 -
 요 바 - 당 - 에 요 물 질 허 영 -

천 - 태 만 태 - 끌 렸 건 마 는 - 11.잘 잘 가 - 는 춤 나 무 베 가 -
 이 어 도 사 나 - 이 어 도 사 나 - 우 리 베 - 는 춤 - 메 새 끼 -
 앞 - 발 로 랑 - 허 우 - 치 명 -
 득 달 - 허 게 - 허 여 나 줍 서 - (후렴3)
 삼 - 시 굶 엉 - 물 질 을 허 영 -
 먹 영 - 살 쟈 - 날 납 - 데 가 -

1. 2.
 술 술 가 는 - 술 나 무 베 가 - 등 곳 등 곳 잘 도 나 간 다
 노 는 듯 이 -

작고 천천히

(후렴2) 처 라 처 저 라 저 라 저 라 저 라

(후렴1)

이 어 도 사 나 - 저 라 저 라 지 어 라 베 겨 라 쿵 쿵 처 라

(후렴2)

이 어 도 사 나 - 이 여 싸 저 라 저 라 지 어 라 베 겨 라 쿵 쿵 처 라

(후렴3)

이 어 도 사 나 - 이 여 싸

해녀노젓는소리

해녀노젓는소리

가창 이어도민속예술단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1.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어서나가자
 요넬젓엉 어덜가리
 진도바당 혼골로가자
 이어도사나 저라저라
 지어라베겨라 쿵쿵쳐라
2. 물로뱅뱅 돌아진섬에
 먹으나끓으나 물질을허영
 혼푼두푼 모아논금전
 서방님술값에 다나간다
 이어도사나 이여싸
 저라저라 지어라베겨라 쿵쿵쳐라
3. 혼믈랑 짓고나가고
 혼믈랑 지고나가자
 이물예랑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리칸에 화장아야
 물때점점 늦어나간다
 이어도사나 이여싸
 저라저라 지어라베겨라 쿵쿵지어라
4. 요네착이 부러진덜
 한라산에 곧은목이 없을손가
 요벤드레 그차나진덜
 선흘고지 물정당줄이 없을소나
 이어도사나 이여싸
5. 우리선관 가는딜랑
 메역좋은 여끝으로
 전복좋은 저머들로
 서리나슬슬 인도나협서

1.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어서나가자
 요 노를 저어 어디를 가리
 진도 바다 한 곶으로 가자
 이어도사나 저라저라
 지어라베겨라 쿵쿵쳐라
2. 물로 빙빙 둘러쳐진 섬에
 먹으나 끓으나 물질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놓은 금전
 서방님 술값에 다 나간다
 이어도사나 이여싸
 저라저라 지어라베겨라 쿵쿵쳐라
3. 한 마루일랑 젓고 나가고
 한 마루일랑 젓고 나가자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 사공아
 허리칸에 화장아야
 물때 점점 늦어간다
 이어도사나 이여싸
 저라저라 지어라베겨라 쿵쿵지어라
4. 요 노착이 부러진덜
 한라산에 곧은 나무가 없을손가
 요 벤드레 끊어진덜
 선흘곳 정당줄이 없을소나
 이어도사나 이여싸
5. 우리 선관 가는 데는
 미역 좋은 여 끝으로
 전복 좋은 저 돌무더기로
 서리슬슬 인도해 주세요

- 6. 저바당에 저군함아
궁글릴대로 궁글러줍서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여싸
- 7. **훈**착손에 테왍을메고
훈착손에 빗창을심영
칠성판을 등에다지고
훈질두질 깊은물속 들어가보난
구쟁기생복 하서라마는
내숨짚랑 못할레라
이에도사나 이여싸
저라저라 지어라베겨라 쿵쿵쳐라
- 8. 요물아래 은과금은
천태만태 깔렸건마는
노픈남의 열매로구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 9. 우리베에 서낭님아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발로랑 요동치멍
득달허게 허어나줍서
이에도사나 이여싸
- 10. 물로뱅뱅 돌아진섬에
삼시끓엉 물질을허영
요바당에 요물질허영
먹엉살젠 날납데가
- 11. 잘잘가는 **츰**나무베가
술술가는 술나무베가
우리베는 **츰**매새끼 **늑**는듯이
둥긱둥긱 잘도나간다
이에도사나 이여싸
저라저라 지어라베겨라 쿵쿵쳐라
쳐라쳐 저라저라 저라저라

- 6. 저 바다에 저 군함아
흔들릴 대로 흔들려 주세요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이여싸
- 7. **한**쪽 손에 테왍을 메고
한쪽 손에 빗창을 잡아
칠성판을 등에 지고
한 길 두 길 깊은 물속 들어가 보니
소라 전복 많더라마는
내 숨 짚아서 못할레라
이에도사나 이여싸
저라저라 지어라베겨라 쿵쿵쳐라
- 8. 요 물 아래 은과 금은
천태만태 깔렸건마는
높은 나무에 열매로구나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 9. 우리 배에 선왕님아
앞발로는 허비적대며
뒷발로는 치올려 차며
도달허게 해 주세요
이에도사나 이여싸
- 10. 물로 빙빙 둘러쳐진 섬에
세 끼니 끓여 물질을 해서
요 바다에 요 물질 해서
먹어 살려고 나를 낳았습니까
- 11. 잘잘 가는 참나무 배가
술술 가는 소나무 배가
우리 배는 참매 새끼 나는 듯이
둥긱둥긱 잘 나간다
이에도사나 이여싸
저라저라 지어라베겨라 쿵쿵쳐라
쳐라쳐 저라저라 저라저라

훈골로 : 한 굽으로. 한 골로. * **굽** : 한쪽으로 트여 나가는 방향이나 길. * **골** : 파도의 작용으로 조간대 해안이 침식되어 육지 쪽으로 파인 고랑. 밀물 때는 바닷물이 밀려들어 오고, 썰물 때는 육지 쪽 물이 배수되는 곳.

훈마를랑 : 한 마루일랑. '마를' 곧 '마루'란 길게 등성이가 진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파도가 등성이지게 이는, 한 차례 노 저어 갈 수 있는 거리를 뜻함.

허리칸 : 배의 한가운데의 비교적 평평한 칸(間). 거루 따위 배의 맨 한 가운데의 칸.

화장아 : 화장아(火匠兒). 뚝배에서 불을 관리하거나 밥을 짓는 일을 맡아 보는 아이.

곶은목 : 곶은 나무.

벤드레 : 낚시거루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멩애와 노손을 묶어 이어놓은 밧줄.

선홀고지 : 선홀곶.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홀리(善屹里)에 있는 수풀(藪).

정당줄 : 땡땡이덩굴. = 정당, 정동, 정동줄.

선관 : 미상(未詳). '배를 탄 사람' 혹은 '배'를 가리키는 듯.

메역 : 미역(甘藷).

머들 : 돌머더기. 그리 크지 않은 돌멩이나 또는 그러한 것의 머더기. 돌멩이처럼 생긴 덩어리 따위.

궁글릴대로 : 흔들릴 대로. 굴릴 대로. * 궁글리다 : 흔들리다. 어떤 사물을 이리저리 굴리다.

훈착손 : 외손(-手). **한쪽 손**.

테왍 :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채취한 해산물을 집어넣는 망사리를 달아 물 위에 떠 있게 하고, 해녀들이 헤엄칠 때나 썰 때는 짚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물건.

빗창 :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 길이는 30cm쯤이며 동그랗게 말린 머리에는 구멍이 있어 손잡이 끈을 달게 되어 있음.

칠성판 : 칠성판(七星板). 바닥에 복두칠성을 그려 놓고 시신을 놓는 나무 판자 또는 관의 밑바닥으로 복두칠성이 그려진 판.

구쟁기 : 소라(螺).

생복 : 생복(生鰓). 전복(全鰓).

렷건마는 : 깔렸건마는.

서낭 : 선왕(船王). 제주 무속에서 배를 관장하는 신을 가리키는데, 배를 따라 다니며 어획(漁獲)을 도우는 신(神). 해산물의 풍요와 어업의 안전, 온갖 배의 운수와 해녀작업 등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신(神).

허우치멍 : 허비적대며.

요동치멍 : '요동치멍'의 잘못. 치올려 차며.

츰나무 : 참나무. 떡갈나무.

츰매 : 참매(-鷹).

1.
 1.
 2.
 9.요 네 - 녹지 - 밤바 - 다에 -
 10.설 운 - 어멍 - 날 - 날 적에 -
 11.놈 이 나 고데 - 애기 랑 배영 -
 12.물 로 나 뱅 뱅 - 돌아진 섬에 -
 13.요 네 - 착이 -
 14.이 여도사나 아 - 하 아 - 잘 도 간 나 저 라 저 라

해녀노젓는소리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1. 요넬젓엉 어딜가리
 진도바당 혼골로가게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2. 저산천에 풀잎새는
 해년마다 프릿프릿 젊어야오고
 요내몸은 혼해두해
 소곡소곡 다늘어진다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저라저라 저라베겨라

3.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디밋틱 화장아야
 물때나점점 다늦어진다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4. 잘잘가는 참나무배가
 술술가는 소나무배여
 우리나라는 참매새끼 늦는듯이
 둥긧둥긧 잘도나간다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저라쳐 저라배겨

5. 앞에나뭇은 용왕님아
 뒤에뭇은 서낭님아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발로랑 모동치멍
 구쟁기생복 좋은딜로
 들어가게 해여나줍서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해녀노젓는소리

가창 제주농요보존회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1. 요 노를 저어 어디를 가리
 진도 바다 한 굽으로 가게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2. 저 산천에 푸십새는
 해년마다 파릇파릇 젊어 오고
 요 내 몸은 한 해 두 해
 소곡소곡 다 늘어진다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저라저라 저라베겨라

3.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 사공아
 허릿대 밑에 화장아야
 물때 점점 다 늦어진다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4. 잘잘 가는 참나무 배가
 술술 가는 소나무 배여
 우리 배는 참매 새끼 나는 듯이
 둥긧둥긧 잘도 나간다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저라쳐 저라배겨

5. 앞에 맑은 용왕님아 뒤에
 뒤에 맑은 선왕님아
 앞발로는 허비적대며
 뒷발로는 치올려 차며
 소라 전복 좋은 데로
 들어가게 해 주세요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 6. 우리나라배에 선도사공
미역좋은 여긔들로
벳머릭만 돌려나줍서
젓걸이로 젓엉가게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저라쳐 저라배겨라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7. 훈착손에 테왁을메고
훈착손에 빗창심영
훈질두질 열두질을 들어간보난
저승도가 분명허다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 8. 요물아래 은과나금은
천태만태 깔렸건마는
노픈남의 열매로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저라쳐 저라배겨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9. 요네녹지 밤바다에
파도가들영 궁글리고
자그만한 여자의심정
황금이들영 궁글럼수다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저라쳐 저라배겨
설운어멍
- 10. 설운어멍 날날적엔
가시나무 몽고지에
손에괘이 박힐려고 날납데가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11. 놈의나고데 애기랑배영
허리지당 베지당말앙
열두신빼 설랑거렁 젓어나보라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저라쳐 저라배겨라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6. 우리 배에 선장 사공
미역 좋은 여 끝으로
벳머리만 돌려 주세요
젓걸이노로 저어서 가게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저라쳐 저라배겨라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7. 한쪽 손에 테왁을 메고
한쪽 손에 빗창을 잡아
한 길 두 길 들어가 보니
저승길이 분명허다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 8. 요 물 아래 은과 금은
천태만태 깔렸건마는
높은 나무에 열매로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저라쳐 저라배겨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9. 요네녹지 밤바다에
파도가 들어서 흔들리고
자그만한 여자의 심정
황금이 들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저라쳐 저라배겨
설운어멍
- 10. 숲은 어머니 나를 낳을 적에는
가시나무 노손에
손에 못이 박힐려고 나를 낳았습니까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11. 남 때문에 애기는 배어서
허리 치레 배 치레 말아서
열두 빼 살랑거려서 저어 보라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저라쳐 저라배겨라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12. 물로나뱅뱅 돌아진섬에
먹으나굶으나 물질을허영
훈푼두푼 모아논금전
서방님술값에 다들어간다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13. 요네착이 부러나지면
한라산에 곱은남이 없을소냐
노방에친이 그차나지면
부산항구 아사히노가 없델말이과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아하하아아
잘도간다 저라저라

- 12. 물로 빙빙 둘러쳐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놓은 금전
서방님 술값에 다 들어간다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 13. 요 노착이 부러지면
한라산에 곱은 나무가 없을소냐
노방에 끈이 끊어지면
부산항구 아사노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아하하아아
잘도간다 저라저라

해녀노젓는소리

<해녀노젓는소리>는 제주 해녀들이 제주도와 한반도에서 물질 작업장으로 오갈 때나 제주도에서 한반도로 출가(出稼) 물질을 나갈 때 돛배의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해녀노래>, <해녀놀레>, <해녀네젓는소리>라고도 한다. <해녀노래>는 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에서는 ‘해녀노래’, 학계에서는 ‘해녀노젓는소리’라고 통칭한다.

사실 내용은 크게 ‘노동 실태’와 ‘서정 표출’을 다룬 두 가지 사설로 나눌 수 있다. ‘노동 실태’의 제재는 노 젓기, 바다의 상황, 해산물 채취, 물질 작업 실태, 출가 항로 등이다. ‘서정 표출’의 제재는 출가 과정, 출가 목적, 출가지 생활, 물질 작업 목적, 인생무상, 탄로, 신세 한탄, 애증, 이별, 연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창방식은 해녀들이 돛배의 노 젓는 동작에 맞추어 가창하므로 주로 선후창 방식으로 부르며, 간혹 교환창이나 독창 방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사실 구조는 2음보이다. 박자는 규칙적인 8분의6박자이고, 단순하면서 역동적인 리듬이 자주 사용된다. 후렴구는 “이어도사나”, “이어싸나”, “이어싸” 등이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해안 지역에서 전승된다.

파도가 세거나 노를 빠르게 저어야 할 때나 노 젓는 노동에 흥이 나거나 도취되었을 때는 가락 없이 후렴구 “이어싸, 저라저라, 저라백여라”만을 소리친다. 파도가 잔잔하거나 노를 천천히 저을 때는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이어싸”와 같은 가락 있는 후렴을 부른다. 구연 현장인 바다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신세 한탄이나 애정 문제 등 생활 감정을 노래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해녀노래는 어느 노동요와는 달리 물질 작업과 노 젓는 노동, 해녀들의 삶과 한반도 출가 등 이른바 노동 실태와 해녀의 생애를 노래한 사설이 많다. 사설의 제재나 수집된 자료의 각편 수로 볼 때 해녀노래는 제주도의 노동요를 대표하는 어업노동요이다.

팍릿팍릿 : 파룻파룻.

소곡소곡 : 거침없이 앞으로 다가가는 모양.

소낭 : 소나무(松).

허릿디 : ‘허릿대’의 잘못. 돛배의 허리칸에 세운 돛대. 돛배의 돛대 가운데 가장 큼.

밋딕 : 밑에(底).

맑은 : 맑은(淸).

모동치명 : ‘오동치명’의 잘못. 치올려 차며.

선도 : ‘선두’의 잘못. 선두(船頭). ①배의 우두머리. 선장(船長). ②벃머리. 배의 앞부분. 이물. 여기서는 ①의 뜻.

벃머룩 : ‘벃머리’의 잘못. 벃머리. 배의 앞 끝. 현두(舷頭).

젓걸이 : 젓걸이노. 돛배의 좌현과 우현에 옆으로 나온 부분인 벃파락에서 젓는 노. ‘젓걸이노’는 배가 나아가는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노(櫓)로 해녀들이 젓는다.

노픈남의 : 높은 나무에.

설운 : ‘설룬’의 잘못. 설은. 서러운. 서럽고 불쌍한.

몽고지 : 노손(櫓-) 배를 젓는 노의 손잡이.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 위쪽 끄트머리에 마련된 손잡이. = 몽ㄹ지.

괭이 : 못. 손이나 발 등의 많이 스치는 살갓에 생기는 굳은 덩이. 손이나 발바닥의 살갓이 딱딱해진 자리. 굳은살. = 꺽이.

놈의나고데 : 남 때문에. *놈 : 남(他人). 고데 : 때문에.

허리지당 : ‘허리지닥’의 잘못. 허리 치레.

베지당 : ‘베지닥’의 잘못. 배 치레.

열두신뼈 : 열두 뼈(骨). 사람의 신체의 부위.

실랑거렁 : ‘실랑거렁’의 잘못. 실랑거려서. 자꾸 흔들려서.

노방에친 : 노방에 끈. *노방 : 배의 노에서 앞과 손잡이를 연결한 부분. *친 : 끈.

아사히노 : ‘아사노’의 잘못. 일본어 ‘あさ(麻)’와 우리말 ‘노’의 합성어. 삼으로 꼬아 만든 밧줄.

꺄레꺄는소리

가창 이어도민속예술단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 = 90



- | | | | |
|-----------------|-----------|---------------------|-------------|
| 1. 지 남 석 - - - | - - - - - | 꺄 레 - - - - | 로 - - 구 나 - |
| 2. 모 직 모 - - 직 | - - - - - | 돌 아 - - 나 - - - - | 간 다 - |
| 3. 흐 루 즈 - 낙 에 | - - - - - | 밀 닷 - 뉘 - - - - - | 꺄 앙 - |
| 4. 중 기 다 - - 섯 | - - - - - | 꺄 언 - - 도 - - - - - | 보 난 - |
| 5. 씨 아 버 - - 님 | - - - - - | 두 개 - 나 드 - - - - - | 리 고 - |
| 6. 씨 어 머 - - 님 | - - - - - | 두 개 - 나 드 - - - - - | 리 고 - |
| 7. 하 나 남 - 은 건 | - - - - - | 반 착 - - 식 - - - - - | 꺄 랑 - |
| 8. 서 방 님 - 허 꺄 | - - - - - | 나 허 - 꺄 - - - - - | 먹 나 - |
| 9. 노 각 - - 꺄 툄 | - - - - - | 내 어 - 꺄 - - - - - | 들 민 - |
| 10. 물 리 거 - - 든 | - - - - - | 돌 아 - - 나 - - - - - | 오 라 - |

제주방언

표준어

꺄레꺄는소리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1. 지남석 꺄레로구나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2. 모직모직 돌아나간다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3. 흐루즈낙에 밀닷뉘꺄앙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4. 중기다섯 꺄언도보난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5. 씨아버님 두개나드리고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6. 씨어머님 두개나드리고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7. 하나남은건 반착식꺄랑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8. 서방님허꺄 나허꺄먹나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9. 노각꺄튼 내어꺄들민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10. 물리거든 돌아나오라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맷돌가는소리

가창 이어도민속예술단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1. 지남석 맷돌이구나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2. 모직모직 돌아간다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3. 하루 저녁에 밀 다섯 되 꺄아서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4. 기름에 튀긴 떡 다섯 개 꺄어도 보니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5. 씨아버지 두 개 드리고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6. 씨어머니 두 개 드리고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7. 하나남은건 반꺄꺄 꺄라서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8. 서방님 하고 나 하고 먹는다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9. 노각 꺄은 내 어깨를 들면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10. 물리거든 돌아오라
이여 이여 허어허어허 이여도 꺄레

지남석 ㄹ레 : 갈기에 무거운 멧돌. 지남석(指南石), 곧 자석처럼 위, 아래 짝이 딱 붙어서 잘 돌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여겨지는 멧돌.

하루 : 하루.

조낙 : 저녁.

닷뒤 : 다섯 되(升).

골양 : 갈아서.

중기 : '중계'의 잘못. 좁쌀 가루나 메밀 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

췌언도 : 쥐어도 잡아도.

노각 : 늙어서 빛이 누렇게 된 오이.

ㄹ튼 : 같은.

ㄹ레 ㄹ는소리

<ㄹ레 ㄹ는소리>는 ㄹ레(멧돌)로 보리나 조 등을 갈거나 빵을 때에 부르는 여성 노동요이다. <ㄹ레놀레>, <ㄹ레소리>, <ㄹ레질소리>, <멧돌노래>, <멧돌질소리>라고도 한다. 'ㄹ레'는 제주어로 멧돌을 일컫는다. 제분기가 없던 시절 제주도에는 집집마다 현무암으로 만든 ㄹ레를 마련하여 두어 자주 집안에서 멧돌질을 하였다. 제주 여성들은 낮에는 밭일이나 물질을 했고 늦저녁이나 새벽에는 멧돌질을 주로 했다.

<ㄹ레 ㄹ는소리> 사설의 제재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설 내용은 멧돌질을 하는 노동 현장과 노동 기능을 표현하거나 개인적인 정서 표현이 주를 이룬다. 특히 여성들의 삶의 정서와 애환, 고된 시집살이가 주를 이룬다.

<ㄹ레 ㄹ는소리>는 혼자서 부르기 때문에 혼자 부르기(獨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따금 되받아 부르기(同一先後唱)과 메기고받아 부르기(先後唱), 주고받아 부르기(交換唱)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락은 유장하고 슬픈 정조를 띤다. "이어이어 이어도 ㅎ라"라는 관용구로 시작하여 각편이 끝날 때마다 "이어이어 이어도 ㅎ라"를 반복한다.

<ㄹ레 ㄹ는소리>는 제주도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설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문학성도 빼어나 제주 노동요의 대표격이다.

뚝딱불미소리

가창 덕수리민속보존회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 = 40



1. 혼	설	—	적	—	에	—	—	아	방	—	죽	—	영	—	—
2. 시	살	—	적	—	에	—	—	하	르	방	죽	—	영	—	—
3. 올	디	—	갈	—	디	—	—	어	서	—	부	—	난	—	—
4. 느	저	—	슬	—	적	—	—	쇠	만	—	골	—	라	—	—
5. 봉	에	—	눈	—	을	—	—	쇠	부	—	름	—	뜨	—	고
6. 불	미	—	불	—	영	—	—	부	좁	—	에	—	낭	—	기
7. 석	자	—	오	—	치	—	—	불	미	—	널	—	에	—	—
8. 일	월	—	송	—	송	—	—	한	밤	—	중	—	에	—	—
9. 저	동	—	방	—	이	—	—	살	퍼	—	보	—	난	—	—
10. 남	방	—	궁	—	이	—	—	살	퍼	—	보	—	난	—	—
11. 참	밭	—	놀	—	이	—	—	불	미	—	놀	—	이	—	—
12. 오	름	—	골	—	라	—	—	노	리	—	단	—	은	—	—
13. 도	관	—	앞	—	에	—	—	노	리	—	단	—	은	—	—
14. 올	디	—	갈	—	디	—	—	어	서	—	부	—	난	—	—



1. 두	설	—	적	—	에	—	—	어	멍	—	죽	—	영	푸르르	탁	탁	푸르르	탁	탁
2. 니	설	—	적	—	에	—	—	할	망	—	죽	—	영						
3. 불	미	—	질	—	이	—	—	나	배	—	웠	—	수	—	다				
4. 양	단	—	어	—	깨	—	—	수	문	—	장	—	걸	—	어				
5. 삼	각	—	쇠	—	를	—	—	봉	우	—	리	—	고						
6. 유	년	—	목	—	을	—	—	벌	러	—	지	—	카						
7. 두	자	—	오	—	치	—	—	사	지	—	게	—	에						
8. 밤	중	—	새	—	별	—	—	완	연	—	하	—	다						
9. 동	산	—	새	—	별	—	—	둥	글	—	둥	—	글						
10. 북	두	—	칠	—	성	—	—	국	자	—	로	—	다						
11. 우	리	—	동	—	창	—	—	벗	님	—	네	—	들						
12. 골	대	—	설	—	쇠	—	—	씩	은	—	물	—	이	—	여				
13. 무	쇠	—	녹	—	은	—	—	씻	물	—	이	—	여						
14. 불	미	—	질	—	이	—	—	난	배	—	웠	—	수	—	다				

제주방언

표준어

뚝딱불미소리

뚝딱불미소리

가창 덕수리민속보존회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1. 혼설적에 아방죽영
 두설적에 어멍죽영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1. 한 살 적에 아버지 죽어서
 두 살 적에 어머니 죽어서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2. 식설적에 하르방죽영
 다킬적에 할망죽영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2. 세 살 적에 할아버지 죽어서
 네 살 적에 할머니 죽어서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3. 올디갈디 엇어부난
 불미질이나 배웠수다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3.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풀무질이나 배웠습니다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4. 늦저슬적 쇠만골랑
 양단어깨 숨은장걸영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4. 늦겨울 때 쇠만 골라서
 두 어깨 숨은장 걸어서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5. 봉에눈을 부름뜨고
 삼각쇠를 봉우리고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5. 봉에 눈을 부름뜨고
 삼각 쇠를 구부리고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6. 불미불영 쯔베낭기
 유년목을 벌러지카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6. 풀무 불어서 구슬잣밤나무
 어린 나무를 쪼개질까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7. 석자오치 불미널에
 두자오치 화찍대에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7. 세 자 오 치 풀무 널빤지에
 두 자 오 치 화찍대에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8. 일월송송 한밤중에
 밤중새별 완연하다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8. 일월 송송 한밤중에
 밤중 새별 완연하다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9. 저동방의 살퍼보난
 동산새별 둥글둥글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9. 저 동쪽에 살퍼보니
 동산 새별 둥글둥글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10. 남방궁의 살펴보난
북두칠성 국자로다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11. 참밭놀이 불미놀이
우리동창 벗님네들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12. 오름꼴랑 느리는물은
골대설쇠 썩은물이어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13. 도관앞에 느리는물은
무쇠녹은 쇧물이어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14. 올디갈디 엇어부난
불미질이나 배웠수다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10. 남쪽을 살펴보니
북두칠성 국자로다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11. 참밭놀이 풀무놀이
우리 동창 벗님네들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12. 오름 괴어서 내리는 물은
골대설쇠 썩은 물이어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13. 도관 앞에 내리는 물은
무쇠 녹은 쇧물이어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14.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풀무질이나 배웠습니다
푸르르 탁탁 푸르르 탁탁

- 훈설 : 한살.
- 식설 : 세살.
- 니설 : 네살.
- 불미질 : 풀무질.
- 꼴랑 : 골라서.
- 늦저술 : 늦겨울.
- 붕에 : 붕어.
- 불미 : 풀무(冶).
- 즈베닝기 : 구슬잣밤나무.
- 유년목 : 어린나무.
- 화찍대 : 부싯깃을 담아 두는 대통. = 불찍대.
- 꼴랑 : 괴어서.
- 느리는 : 내리는.

똑딱불미소리

<똑딱불미소리>는 혼자서 하는 손풀무 작업으로 낫이나 호미 등을 버리거나 만들면서 노동요이다. 무쇠솔이나 농기구 등을 만들기 위해 풀무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인 <불미소리>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노동요이다.

<똑딱불미소리>는 혼자서 하는 손풀무 작업으로 낫이나 호미 등을 버리거나 만들면서 부른다. <토불미소리>는 손풀무이지만 여럿이 작업에 참여하여 소규모로 무쇠솔이나 벼, 보습 등을 만들면서 부른다. 반면, <디딤불미소리>는 영업을 목적으로 제법 큰 규모의 작업장에서 무쇠솔이나 농기구를 만들며 부른다.

사실 내용은 풀무 작업하는 노동 현장과 노동 실태, 작업 독려와 개인적 정서가 주를 이룬다. <똑딱불미소리>는 서귀포시 법환동·대포동에서 온전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불미소리

가창 덕수리민속보존회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 = 95



어 야 - 양 - - 어 어 - 영 1. 불 미 낭 - 불 - 영 담 배 나 - 먹 - 게
 2. 요 - 불 - 미 - 는 된 - 불 - 미 - 여
 3. 네 자 - - 오 - 치 불 - 못 - 널 - 에
 4. 석 자 나 - 오 - 치 화 - 짝 - 대 - 에
 5. 자 나 두 - - - 치 쌍 - 댕 - 머 - 리
 6. 주 - 베 - 남 - 에 유 - 년 - 목 - 을
 7. 산 을 - - - 념 - 고 물 - 을 - 건 - 너
 8. 꼬 - 끼 - 욱 - - - 독 - 은 - 울 - 고
 9. 먼 - - - 셋 - 별 떠 - 오 - 른 - 다
 10. 두 돈 - - 오 - 폰 벌 - 져 - 허 - 민
 11. 양 어 - - 깨 - 가 빠 질 로 - 구 - 나



어 야 - 양 - - 어 어 - 영 12. 독 - - 앞 으 로 - 옮 겨 나 - 가 보 세
 13. 무 쇠 - 녹 - 은 - 물 이 로 - 구 - 나
 14. 직 대 - 대 - 장 - 걸 - 음 - 보 - 라
 15. 허 우 라 덩 - 삭 - 가 - 져 - 걸 - 음
 16. 백 스 - 장 - 에 - 진 - 대 래 걸 - 음
 17. 요 - - 덩 이 를 - 솔 - 퍼 나 보 - 라
 18. 아 니 나 되 - 민 - 공 - 실 - 이 - 여
 19. 잘 - - 때 - 민 - 서 - 방 - 이 - 고
 20. 요 만 - 허 - 면 - 쿨 - 받 아 지 키 여
 21. 요 - - 돈 - 을 - 벌 - 어 - 그 - 네
 22. 밧 - 을 살 - 까 - 논 - 을 - 살 - 까

제주방언

표준어

불미소리

불미소리

가창 덕수리민속보존회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아아양 어어영

아아양 어어영

불미나불영 담배나먹게
 아아양 어어영
 요불미는 된불미여
 아아양 어어영
 네자오치 불못널에
 아아양 어어영
 석자나오치 화 짝대에
 아아양 어어영
 지나두치 쌍댕머리
 아아양 어어영
 주베남의 유년목을
 아아양 어어영
 산을넘고 물을건너
 아아양 어어영
 꼬끼욱 독은울고
 아아양 어어영
 먼셋별 떠오른다
 아아양 어어영
 두돈오폰 벌져허민
 아아양 어어영
 양어깨가 빠질로구나
 아아양 어어영
 독앞으로 옮겨나가보세
 아아양 어어영
 무쇠녹은 물이구나
 아아양 어어영
 직대대장 걸음보라
 아아양 어어영
 허우라덩삭 가젠걸음
 아아양 어어영
 백스장에 진대래걸음
 아아양 어어영
 요댕이를 솔퍼나보라

풀무 불어서 담배 피우게
 아아양 어어영
 풀무는 잘된 풀무여
 아아양 어어영
 네 자 오치 풀무 널빤지에
 아아양 어어영
 세 자 오 치 화 짝대에
 아아양 어어영
 자 두치 쌍대 머리
 아아양 어어영
 구슬잣밤나무 어린 나무를
 아아양 어어영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아양 어어영
 꼬끼욱 닭은 울고
 아아양 어어영
 먼 셋별 떠오른다.
 아아양 어어영
 두 돈 오 폰 벌 려고 하면
 아아양 어어영
 두 어깨가 빠지겠구나
 아아양 어어영
 독 앞으로 옮겨 가보세
 아아양 어어영
 무쇠 녹은 물이구나
 아아양 어어영
 쇠물 붓는 대장 걸음 보라
 아아양 어어영
 엉거벌리는 가려는 걸음
 아아양 어어영
 백사장에 진대래 걸음
 아아양 어어영
 요 거꾸집틀을 살퍼보라

아아양 어어영	아아양 어어영
아니나되민 공실이어	아니 되면 헛일이여
아아양 어어영	아아양 어어영
잘때민 서방이고	잘 때면 서방이고
아아양 어어영	아아양 어어영
요만허면 콤받아지키여	요만하면 품삯 받아지겠다.
아아양 어어영	아아양 어어영
요돈을 벌어그네	요 돈을 벌어서
아아양 어어영	아아양 어어영
밭을살까 논을살까	밭을 살까 논을 살까
아아양 어어영	아아양 어어영
아아양 어어영	아아양 어어영

불미 : 풀무(冶).
화찍대 : 부싯깃을 담아 두는 대통. = 불찍대.
즈베남의 : 구슬잣밤나무에.
독 : 닭(鷄).
백사장 : 백사장(白沙場).
덩이 : 무쇠를 녹인 쇳물을 부어 솥·벗·보습 등을 만드는 주형(鑄型).
콤 : 샓(賃). 품삯.
솔퍼나보라 : 살퍼보라.
밭 : 밭(田).

불미소리

<불미소리>는 무쇠솥이나 농기구 등을 만들기 위해 풀무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주물 공예 현장에서 불리기 때문에 전승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다. <불미 소리>는 표준어로 <풀무질하는소리>라고 한다. '불미'는 제주어로 풀무(冶)를 일컫는다.

<풀무질하는소리>는 한반도 일부 지역에서도 전승되지만 제주도에서 온전히 전승된다. <똑딱불미소리>는 혼자서 하는 손풀무 작업으로 낮이나 호미 등을 버리거나 만들면서 부른다. <토불미소리>는 손풀무이지만 여럿이 작업에 참여하여 소규모로 무쇠솥이나 벗, 보습 등을 만들면서 부른다. 반면, <디딤불미소리>는 영업을 목적으로 제법 큰 규모의 작업장에서 무쇠솥이나 농기구를 만들며 부른다.

사실 내용은 풀무 작업하는 노동 현장과 노동 실태, 작업 독려와 개인적 정서가 주를 이룬다.

<똑딱불미소리>는 서귀포시 법환동·대포동에서 온전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토불미소리>와 <디딤불미소리>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한경면 낙천리 등 일부 마을에서 불리기도 했지만 풍부하게 전승되는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이다. 가정에서 쓰던 무쇠솥과 쟁기·보습 등 농기구의 대부분은 안덕면 덕수리에서 생산·공급하였다. 덕수리에서 전승되는 <불미소리>는 자급자족하던 제주의 전통적 풀무 공예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덕수리'불미 공예'는 공예 기술과 노래가 온전히 남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밀레질소리

가창 덕수리민속보존회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 = 40

(후렴) (후렴)

어 허 - 밀 레 로 다 - - 1. 노 뜬 디 랑 - - 밀 어 - - 다 가 -
 야 뜬 디 로 - - 메 워 - - 가 명 -

(후렴) (후렴)

저 바 - - 당 에 - - 물 - 절 치 듯 - 할 락 산 에 - - 구 - 림 - 일 듯 -

(후렴) (후렴)

호 근 산 에 - - 안 - 개 지 듯 - 솔 짝 솔 짝 - - 밀 어 나 - 보 자 -

(후렴) (후렴)

물 - - - 절 이 - - 이 는 - 구 나 - 2. 물 좋 은 - - 우 - 리 - 고 장 -

(후렴) (후렴)

이 고 장 에 - - 태 여 - 나 서 - 이 고 - - 장 - - - 좋 - 은 물 로 -
 풍 년 농 사 - 를 지 여 - 그 네 - 나 - - - 라 에 - - 진 - 상 허 곡 -

(후렴) (후렴)

웃 대 조 상 - - 봉 - 제 허 명 - 물 - - - 절 이 - - 노 - 는 구 나 -
 부 모 님 께 - - 공 - 양 허 곡 -
 우 리 권 속 - - 양 - 식 효 자 -

(후렴) (후렴)

3. 이 팔 청 춘 - - 소 - 년 들 아 - 나 도 - - 어 져 - - 청 춘 이 더 니 -
 백 발 보 고 - - 희 - 롱 마 라 -

(후렴) (후렴)

오 날 백 발 이 - - 되 - 었 - 구 나 - 젊 었 을 때 - - 조 - 낭 해 사 -
 후 제 나 민 - - 호 - 강 현 다 -

(후렴) (후렴)

4. 허 당 말 민 - - 놓 - 이 나 웃 나 - 물 - - - 절 이 - - 노 - 는 구 나 -
 부 지 런 히 - - 허 여 나 - 보 자 -
 먼 디 사 림 - - 보 - 기 나 좋 게 -
 흔 저 흔 저 - - 허 여 나 - 보 자 -

(후렴) (후렴)

4. 실 뜬 일 랑 - - 거 - 린 듯 이 - 나 노 - 래 랑 - - - 산 념 영 가 곡 -
 요 노 래 로 - - 날 - 보 내 라 -

(후렴)

요 노 래 랑 - - 물 - 념 영 갑 서 - 잠 간 전 에 - -
 오 널 날 도 - - 다 저 물 어 간 다 -

(후렴)

다 - 되 었 저 - 어 허 - 밀 레 로 다 - -

밀레질소리

밀레질소리

가창 덕수리민속보존회
채보 문효진
감수 강효주
채록 이성훈

어 허어 밀레로다

어 허어 밀레로다

- 1. 노픈디랑 밀어다가
어 허어 밀레로다
야튼디로 메워가며
어 허어 밀레로다
저바당에 물걸치듯
어 허어 밀레로다
할락산에 구름일듯
어 허어 밀레로다
호근산에 안개지듯
어 허어 밀레로다
솔썩솔썩 밀어나보자
어 허어 밀레로다
물결이 이는구나
어 허어 밀레로다

- 1. 높은 데는 밀어다가
어 허어 밀레로다
얇은 데로 채워가며
어 허어 밀레로다
저 바다에 물걸치듯
어 허어 밀레로다
한라산에 구름일듯
어 허어 밀레로다
호근산에 안개지듯
어 허어 밀레로다
살썩살썩 밀어보자
어 허어 밀레로다
물결이 이는구나
어 허어 밀레로다

- 2. 물좋은 우리고장
어 허어 밀레로다
이고장에 태어나서
어 허어 밀레로다
이고장에 좋은물로
어 허어 밀레로다
풍년농사를 지어그네
어 허어 밀레로다
나라에 진상허곡
어 허어 밀레로다
웃대조상 봉제허멍
어 허어 밀레로다
부모님께 공양허곡
어 허어 밀레로다
우리권속 양식효자
어 허어 밀레로다
물결이 노는구나
어 허어 밀레로다

- 2. 물 좋은 우리 고장
어 허어 밀레로다
이 고장에 태어나서
어 허어 밀레로다
이 고장에 좋은 물로
어 허어 밀레로다
풍년 농사 지어서
어 허어 밀레로다
나라에 진상하고
어 허어 밀레로다
윗대 조상 봉제사하면서
어 허어 밀레로다
부모님께 공양하고
어 허어 밀레로다
우리 권속 양식 효자
어 허어 밀레로다
물결이 노는구나
어 허어 밀레로다

- 3. 이팔청춘 소년들아
어 허어 밀레로다
백발보고 희롱마라
어 허어 밀레로다
나도어젠 청춘이더니
어 허어 밀레로다
오늘백발이 되었구나
어 허어 밀레로다
젊었을때 조냥해사
어 허어 밀레로다
후제나민 호강한다
어 허어 밀레로다

- 3. 이팔청춘 소년들아
어 허어 밀레로다
백발 보고 희롱마라
어 허어 밀레로다
나도 어제는 청춘이더니
어 허어 밀레로다
오늘 백발이 되었구나
어 허어 밀레로다
젊었을 때 절약해야
어 허어 밀레로다
후제 나면 호강한다
어 허어 밀레로다

- 4. 흑당말민 놈이나웃나
어 허어 밀레로다
부지런히 허어나보자
어 허어 밀레로다
먼디사름 보거나 좋게
어 허어 밀레로다
훈저훈저 허어나보자
어 허어 밀레로다
물결이 노는구나
어 허어 밀레로다

- 4. 하다가 말면 남이 웃는다
어 허어 밀레로다
부지런히 해보자
어 허어 밀레로다
먼 데 사람 보기 좋게
어 허어 밀레로다
어서 빨리 하여 보자
어 허어 밀레로다
물결이 노는구나
어 허어 밀레로다

- 5. 실픈일랑 거린듯이
어 허어 밀레로다
요노래로 날보내라
어 허어 밀레로다
나노래랑 산넘영가곡
어 허어 밀레로다
요노래랑 물넘영갑서
어 허어 밀레로다
오늘날도 다저물어간다
어 허어 밀레로다
잠깐전에 다되었져
어 허어 밀레로다

- 5. 싫은 일은 덜어내듯이
어 허어 밀레로다
요 노래로 나를 보내라
어 허어 밀레로다
나 노래는 산 넘어 가고
어 허어 밀레로다
요 노래는 물 넘어 가세요
어 허어 밀레로다
오늘도 다 저물어간다
어 허어 밀레로다
잠깐 전에 다 되었다.
어 허어 밀레로다

노푼디랑 : 높은 곳에는.
아튼디로 : 얇은 곳으로.
물질치듯 : 물결치듯.
메워가며 : 채워가며.
할락산 : 한라산(漢拏山), 제주도 북판에 솟은 남한 최고봉.
호근산 : 호근산(好近山), 서귀포시 신시가지 북동쪽에 있는 오름. = 고근산(孤根山).
솔짝솔짝 : 살짝살짝.
웃대조상 : 윗대 조상.
봉제허멍 : 봉제사(奉祭祀)하면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면서.
오날 : 오늘.
조냥해사 : 아껴서 비축해야.
흐당 : 하다가.
말민 : 말면, 그만두면.
흔저흔저 : 어서 빨리.
실픈일랑 : 싫은 일일랑.
오닐날 : 오늘날.

노래해설

밀레질소리

<밀레질소리>는 갈아 놓은 논외 바닥을 '밀레'라는 연장으로 고르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밀레질 놀레>, <설메질소리>라고도 한다. '밀레'는 제주어로 씨레를 일컫는다.

<밀레질소리>는 논농사를 지을 때 논에 물은 댄 후, 1차 씨레질을 한 다음 밀레질을 할 때 부르는 민요이다. 논농사를 할 때 모심기 전에 논을 갈고 나서 씨레질을 한 다음, 논바닥을 최종적으로 고르는 작업을 밀레질이라고 하는데, 이때 부르는 민요가 <밀레질소리>이다.

제주도에선 논이 드물다. 논농사를 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서귀포시 강정동처럼 비교적 넓은 논이 있어서 논농사를 주요한 생업의 하나로 삼아온 지역은 극히 드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밀레질소리>는 서귀포시 강정동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민요로, 다른 농업노동요에 비해 전승되는 지역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승되는 노래가 몇 편에 불과할 만큼 희귀하다.

사실 내용은 거의 대부분 노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밀레질 하는 남성이 선소리를 하기 때문에 여성적인 생활 감정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 대신 노동의 힘을 부추기는 권력(勸力)하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채보 : 문효진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 박사과정 수료
멜버른 대학 음악학과 학사 / 준석사(honours) / 석사
이어도사나 피아노 콘체르토 등 다수 작곡 및 해외페스티벌 참여
음반 '영혼은 바람이 되어' 외 다수 발매
수상 문체부 장관상 우수상(지역양성기획)

감수 : 강효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조교수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경기12잡가) 이수자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정악원 이사
(전)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성악 수석, 부수석

채록 : 이성훈

문학박사, 전 송실대 겸임교수
저서 『해녀의 삶과 그 노래』, 『제주도 해녀노젓는소리의 본토 전승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해녀연구총서』(전5권), 『해녀노래 주석사전』, 『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

녹음 | 믹싱 | 마스터링 : 양정환 Walt. H. Yang @ Eye To Eye Studio

녹음일 : 2022년 5월 13일

노래 : 제주농요보존회, 이어도민속예술단, 덕수리민속보존회

2022 제3회
상설공연
제주일노래
민요의 나라
신화의 섬에
흔적
아름답게
기록

발행일 2022년 9월 8일

발행처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발행인 고영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주최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주관 제주일노래상설공연집행위원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ww.jejusong.or.kr